

학급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수업문화 —한국 중등학교 사회수업의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조 영 달*

- I. 서언 : 수업문화의 이해
- II. 수업문화의 이해를 위한 연구의 기본 틀
- III. 한국의 수업문화 : 사회과 수업조직과 학습 상호작용
- IV. 논의와 결론 : 수업문화의 연구는 바람직한 학급문화형성의 기초

I. 서언 : 수업문화의 이해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사건 이후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의 일부는 어른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후자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현대 한국사회의 특징인 산업화에 따른 비인간화, 경제지향적인 가치관,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산 등이 이러한 현상을 낳았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가정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 정도 전자의 입장에 선 사

람들은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의 정착을 위해 “동아리 문화”를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면 모두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과 청소년 문화의 형성에 대한 고려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업은 청소년이 보내는 학교생활의 대부분이며, 또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점에서 학교 수업문화는 청소년 문화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이러한 학교 수업문화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중등학교 수업문화를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해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학교 수업문화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행해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관계로 이 연구는 수업문화 분석의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의 학교 수업문화를 이해해 보려 한다. 실제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즉, 행동양식을 달리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여러 개념들의 행동적인 표현양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은 사회현상을 분석, 설명하는데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념들 중에서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의 학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지는 시간의 사용형태이다. 이러한 교실수업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사용형태는 우리 수업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우선 한국의 수업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화로서의 시간 개념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 다음 실제 우리 수업이 가지는 시간 사용의 형태를 이해해 보기로 한다. 이에 있어 모든 수업은 그 대상이 되는 과목의 성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모든 수업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 하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중등학교 사회과의 경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에 있어 이 연구가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의 사회

수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수업시간 가운데에서 수업의 각 단계가 차지하는 시간의 길이나 그 단계별 '기능(전체 수업에 대한)'과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날의 주제에 관한 교수-학습 유형이 시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후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형식적 상호작용"이란 한국적 유형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은 다음에서 언급되겠지만 실질적인 사고 기회의 결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려는 노력속에서 우리는 한국 교육현장의 수업문화가 가지는 문화적 특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학급문화의 핵심에 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수업문화의 이해를 위한 연구의 기본 틀

1. 연구의 방법과 절차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 중구의 어느 고등학교이다. 이 지역은 주로 많은 수의 중소·영세 상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서울에서 오래된 곳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발전이 있었던 곳은 아니다. 이러한 지역배경을 기초로 한 이 학교는 남녀 공학이며 하류에서 상류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급은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반이며, 연구를 위해 약 6개월간 사회수업을 관찰하였다

(1991. 3~1991. 10). 그리고 관찰된 바의 내용은 관찰노트에 기록되었으며, 이 교실의 수업을 대표하는 몇개의 비디오 태입이 만들어졌다. 이 비디오 녹화는 처음에는 그냥 설치만 해두었다가, 나중에 학생들이 비디오 녹화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흐른 뒤, 수업 그 자체를 평소 그대로의 형태로 태입에 담았다. 이는 교실 수업문화의 이해를 위한 가식되지 않은 자료 수집을 위해 취해진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비디오플레이어를 통하여 수업의 매 장면이 분석되었으며, 분석의 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교사의 검토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은 오늘날 미시-기술적 *micro-ethnographic* 수업연구에서 흔히 사용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교육연구의 해석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대화나 의사전달의 당사자들이 현재하는 구체적인 장면 *social scenes*의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Youngdal, 1989).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수업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이 연구가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업의 교사는 13년의 경력을 가진 사범계 대학을 나온 남자였다.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였으며,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으로, 그리고 설명을 잘 해주는 실력있는 선생님이 통했다. 실제로 그는 시중에서 상당히 인기있는 사회 참고서의 저자이기도 했으며, 그가 수업에서 강조한 유형의 문제들이 때때로 대학입학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그의 성가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

이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정보전달에서 중요한 한 형식을 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실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실제로 정보흐름이 그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그 공간 구성원들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일종의 문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자체와 언어적 행동 및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언어는 대화의 채널이며, 언어적 행동은 대화 당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인식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언어사용의 형식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틀은 화자의 사회적 지위, 힘 등을 포함하며, 또한 대화의 매개가 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교실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교사는 학생에 비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의 수업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교재인 교과서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교재를 다루는 유형 역시 대화 당사자의 역할과 지위 및 그 사회적 공간에서의 행동양식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 틀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은 확실히 문화의 한 표현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공간을 지배하는 많은 문화적 양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화적인 특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사용 양식 분석에서 잘 드러날 수 있다(Hall & Hall 1987).

이러한 방식으로 교실수업을 생각할 때, 사회수업 상호작용(교사와 학생 사이의)에서의 시간사용과 그 배분 형태는 중요한 수업문화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수업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학급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실 상호작용에서 분석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속도 *speed*”이다(Hall & Hall, 1987). 이는 주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빠르기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문만화나 텔레비전 광고 등과 같이 쉽고 빠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빠른 메시지 *fast message*”에 속한다. 그리고 책이나 TV의 다큐멘터리, 시와 같이 천천히 그리고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은 “느린 메시지 *slow message*”에 속한다. 여기서 만약 느린 메시지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빠른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는 당황하게 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간의 배분과 관련된 시간 사용 형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간 사용의 유형은 삶의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인간 자신의 생물학적 시간의 표현 *expression of our biological clocks*이라는 측면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한번에 하나의 일에 매진하는 “단수적 시간사용 *monochronic time*” 유형에 익숙한 반면, 어떤 문화에서는 한번에 여러 개의 일을 관여시키는 “복수적 시간사용 *polychronic time*” 형태에 익숙해 있다. 미국의 비지니스계가 단수적인 시간사용 유형에 익숙하다면, 남미의 경우에는 복수적 시간 사용유

형을 가끔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일의 전개상황에서 어디를 가장 비중있는 때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상인이 일처리 후의 식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반면, 간혹 한국의 경우에는 일과후의 저녁식사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사용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화시켜보는 일은 그 시간 그 공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제 다음에서 우리는 한국 어느 고등학교의 사회수업을 통해 교실 수업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볼 것이다.

III. 한국의 수업문화 : 사회과 수업조직과 학습 상호작용

교실의 사회수업은 대체로 다섯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그 첫번째 단계는儀式의 단계이다. 교사는 교실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잡고, 쉬는 시간동안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떠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즐길 수 있던 자유를 공식적인 의식에 의해 돌려 받게 된다. 즉, 그것은 주로 “차렷-경례”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사이다.

이 인사는 그냥 보기에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주는 존경의 표시이거나 의례적인 관습일 수 있으나, 실제로 그 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차렷-경례”의 의식 이후에는 결코 학생들은 마음대로 떠들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시간을 사용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교실은 어느 정도 수업

분위기를 형성해나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단계를, “수업을 위한 권위설정 의식의 단계”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교실에서 교사가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수업은 거의 실패한다. 왜냐하면 통제하기에 매우 많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모든 학생이 그의 지도력에 복종하게 하는 길이 거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첫단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의 예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업을 위한 권위설정 의식의 단계

(교실은 매우 소란스럽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직 교사의 현시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잠시후 점차 학생들은 교사의 등장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주변이 일어서서 구령을 붙인다.)

S: 차렷//경례

SS: [안녕하세요

T: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웅성 웅성하는 소리가 교실안에서 어느 정도 사라지고 교실은 평온을 되찾는다. 어떤 학생은 사회 책을 펼쳐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을 찾기도 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확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서로 오늘 자신들이 해야할 과업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는 이 단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오늘의 수업을 위한 정지작업을 벌이게 된다. 필요한 개념을 학생과 같이 확인하고, 이 시간의 수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교재를 준비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보통

이 단계는 4, 5분 계속되며, 때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짧아지기도 한다. 즉, 이 단계는 다음의 교수-학습 단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단계이며, 오늘 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다음은 이러한 확인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확인 단계

T: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에는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죠, 다시한번 간략히 이야기해 보죠./우선 소비란 개념은 뭐라 정의내리죠?

SS: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

SS: (일부의 학생들은 교과서를 펼쳐 합리적 소비 단원을 찾는다.)

T: 소비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불러요?

SS: [효용

T: [효용 그런데 이 효용을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세가지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SS: 네

T: 여기서 하나가 [총효용, 그 다음이 [한계효용/또 하나가 [평균효용

SS: [총효용 [한계효용 [평균효용

T: 여기서 ‘총’과 ‘평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수학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SS: 네

T: 다만 ‘한계’란 개념은 어떤 것의 증가분에 대한 다른 어떤 것의 증가분인데 수학적으로 $[\Delta X \text{분의 } \Delta Y]$ 로 표현할 수 있다.

SS: $[\Delta X \text{분의 } \Delta Y]$

T: 그러한 공식에 집어 맞추어서 한계효용의 정의를 내려보면 한계효용은/

[소비량의 증가분에 대한 총효용의 증가분

SS: [소비량의 증가분에 대한 총효용의 증가분

T: 우리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차츰 차츰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다?

SS: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T: 한편 한계효용과 총효용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는 지난 시간 몇가지 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계효용이 (+)의 값을 가질 때에는 총효용은?

ST: 증가

T: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은?

ST: 극대

T: 한계효용이 (-)의 값을 가질 때 총효용은?

ST: 감소

T: 그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SS: 네

《교수-학습 단계의 시작》

T: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소비가 가장 합리적인 소비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인의 단계 다음으로 그 시간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업이 행해지는 단계가 시작되며, 이것이 교수-학습의 단계이다. 실제로 이 단계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교사가 “진도를 나간다”고 표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는 그날의 과업과 관련되는 여러 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보여질 수업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수요의 법칙 등의 주제로 교수-학습되었다. 이러한 각 주제의 교수-학습을 위한 시간의 사용세트를 우리는 “주제학습 세트”라 개념화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수-학습 단계는 그날 수업 과제와 관련된 몇 개의 주제학습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주제의 선정 그 자체는 대부분 사회 교과서의 소단원이나 중단원 및 서술된 핵심적인 개념이나 일반화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 주제학습 세트는 다시 3단계의 구성을 지닌다. 우선 그 주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인도”의 단계가 있으며, 이어서 주제 그 자체의 교수-학습에 초점을 모으는 “집중 수업 행위”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자신이 가진 수업의 기술을 동원하여 그 주제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그날의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다시 그 주제를 학생들에게 정리-인식시키게 되며, 이를 위해 필기를 하거나 줄을 그어 강조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진 주제를 학생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그 주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각인의 노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는 이 단계를 단순한 요약의 단계가 아닌 “압축”의 단계라 불렀다. 대부분의 우리가 모은 자료는 이러한 3단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의 보기는 이를 잘 나타내어 준다.

교수-학습 단계

〈주제학습 세트 1: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인도 guide〉

T: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소비가 가장 합리적인 소비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한다면 합리적인 소비란 것은 효율성에 입각한 소비죠, 그렇죠?

SS: 네

T: 효율성에 입각한 소비란 결국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나 만족을 가장 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조건이 하나 하나 충족되는가 살펴봅시다. /교과서 170페이지, 두번째 ‘소비자 선택’을 꼭 한번 읽어보겠어요.

〈집중수업 행위 *focused activity*〉

T: 1번 읽어

(1번은 교과서를 읽어내려가고 다른 학생들은 교과서를 펴고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밑줄을 친다.)

S: (2) 소비자 선택/일정한 소득과 합리적 소비/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여러가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소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큰 총효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T: 여기서 부터 밑줄

1번: 소비자의 일정한 지출액으로 총효율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를 합리적인 소비라 한다.

T: 됐어 그만/‘합리적 소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렇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일정한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무얼 가장 크게 해야 한다? /기쁨의 크기를 가장 크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총효율의 덩어리를 가장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크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일정한 지출로 [총효율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SS: [총효율

T: 어떻게 소비할 때 총효율이 가장 커지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경제학 법칙이 바로 한계효율균등의 법칙이에요. 이시간에는 한계효율균등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은 뒤로 돌아 칠판에 ‘한계효율균등의 법칙’이라고 쓰고 학생들은 이것을 필기한다.)

T: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무얼 배웠죠?

한계효율[

SS: [체감

T: 체감의 법칙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인 소비조건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계효율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겠어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정한 지출로 총효율을 가장 크게 하는 합리적 소비는 어떤 법칙을 만족할 때 가능한다는 거예요? [한계효율균등의 법칙에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

SS: [한계효율균등의 법칙

T: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한계효율체감의 법칙은 일명 고센의 제 1법칙, 한계효율균등의 법칙은 고센의 제 2법칙이라고 하죠. 고센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이제부터 한계효율균등의 법칙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이거예요. /2번 읽어

2번: 다음 표 5-1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두 가지 재화의 소비량과 각각의 한계효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X재 마이너스 1개를 소비한 소비자가

SS: [와와 (잘못 읽자 웃음이 난다. 선생님이 이를 정정한다.)

T: ‘X재 1개를 소비한’ 계속해서 읽어

S: 목이 아파서 못 읽겠어요.

T: 그러면 최정운

SS: 피겨 스케이팅선수라서 지금 없어요.

T: 이재연 171페이지부터 읽어봐

이재연: X재 1개를 소비한 소비자가 1개를 더 소비하여 모두 2개를 소비하게 되면, 이 둘째번 X재의 소비는 총효율을 600 더 증가시킨다. 즉, 둘째번 X재의 소비로 얻는 한계효율은 600이다.

T: 됐어 밑줄쳐

이재연: 이때 X재의 가격을 1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한계효율을 가격으로 나누어보면, X재 1원어치의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율은 60이 된다.

T: 됐어 그만

이재연: 셋째번 X재를 소비하면 총효율은 500이 더 증가하므로 그 한계효율은 500이며, 1원어치의 한계효율은 같은 방법으로 50이 된다. 다시 말하면, X재의 소비가 1개씩 증가한다고 볼 때의 한계효율이나 그 1원어치의 한계효율은 다같이 감소하게 되는데,

T: 됐어 밑줄

이재연: 여기서 우리는 한계효율이 체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 그만/지금 우리 교과서 170페이지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주어져 있죠? 그렇지? 이 표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소비의 조건을 알아보겠는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살수있는 물건은 무수히 어때요?

SS: 많아요

.

.

.

.

.

SS: 네

T: 이렇게 해서 요 조건이 충족될 때

(칠판에 $\frac{X\text{재의 한계효용}}{X\text{재의 가격}} = \frac{Y\text{재의 한계효용}}{Y\text{재의 가격}}$ 에 밑줄을 그으며)

소비자의 만족은 가장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압축 compression>

T: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겠느냐? /가장 단순한 문제로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다음 중//총효용을 가장 크게하는 그러한 소비의 조건은? 먼저 보기 네개가 나오겠조? 그렇조? 1번 X재 한계효용 이콜 Y재 한계효용, 맞아요 틀려요?

SS: [맞아요,

SS: [틀려요

T: X재 한계효용 이콜 Y재 한계효용 맞아요 틀려요? 틀렸조,

(칠판의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을 가리킨다.)

T: X재 한계효용이 아니라 X재 얼마치의 한계효용? [1원어치 한계효용

SS: [1원어치

T: 이콜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이래야 맞조, 그렇조?

SS: 네

T: 그러니까 1번 X재 한계효용 이콜 Y재 한계효용은 틀린 거예요 그렇조?

SS: 네

T: 2번 X재 한계효용 $\times$ X재 가격 이콜 Y재 한계효용 $\times$ Y재 가격, 맞아요 틀려요?

SS: [틀려요

T: [틀려요, 그런 걸 첫번째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SS: 네

T: 정확한 식은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이콜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다르게 표현하면 X재 가격 분의 X재 한계효용 이콜 Y재 가격 분의 Y재 한계효용/요런 문제는 가장 쉽게 풀 수 있고, 아니면 방금 우리 교과서 170페이지에 나온 표 있조, 그런 걸 딱 주교서 다음 표에서 X재는 얼마 Y재는 얼마라고 할 때 몇 단위라고 짝 지워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나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SS: 네

T: 그러면 여러분은 X재와 Y재의 1원어치 한계효용이 각각 같은 곳을 찾아가지고 또 일정한 소비액과 딱 맞아떨어지는가를 보면 되는데, 대개 맞아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SS: 네

T: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거꾸로 풀어야 돼요, 시험문제지에서는, /3번란 6번란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아 3번란에 30 나와있고 6번란에 30 나와있구나 그랬을 때 X가 4, Y가 13 이것을 가격으로 곱하면고 시험문제에서 주는 소비액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시험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3번란과 6번란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왜? 가격주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S: 네

T: X재 가격이 10원, Y재 가격이 5원 이렇게 주고 3번 6번란을 없애버리면/가격으로 나눠버리면 60, 50,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조?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시험문제유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SS: 와와

T: 그렇지만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안 나와요, 시험범위를 넘으니까, 학기말 고사에서는 기필코 내교야 말겠어요,

SS: [와-와-

T: 자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요조건(칠판으로 돌아

$\frac{X\text{재의 한계효용}}{X\text{재의 가격}} = \frac{Y\text{재의 한계효용}}{Y\text{재의 가격}}$ 에 손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가리키며)

요조건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한계효용균등의 법

SS: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T: 이 균등이라는게 뭐예요? 양쪽다 뭐가 될 때 이콜이 된다? 이것을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 재화 얼마치의 한계효용이 서로 균등할 때? /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균등할 때, 이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SS: [1원어치의 한계효용

T: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원리를 뭐라고 이름 붙였나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고 붙인거예요. 알겠어요?

SS: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네

T: 읽어(한 학생이 다시 읽기 시작했으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만 목소리가 작네./이현정 읽어(읽는 도중 발음의 실수 및 목소리의 특이함으로 몇번씩 학생들이 웃는다.)

이현정: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상품의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비할 때 소비자는 가장 큰 총효용을 얻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것을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 한다.

T: 됐어 밀줄

SS: 즉,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각 재화의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같게 되도록 일정한 지출액이 각 재화의 소비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 그만/그리고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지요. 이 식을 밀줄을 치겠어요. 식./식을 밀줄을 탁 치고, 두줄을 치세요. 한줄만 치지 말고./그 식은 내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학생들은 교과서의 172페이지의

$$\frac{X\text{재의 한계효용}}{X\text{재의 가격}} = \frac{Y\text{재의 한계효용}}{Y\text{재의 가격}} = \text{화폐 1원어치의 한계효용에 밀줄을 두줄친다})$$

SS: 네

T: [X재 가격분의/같이 해보죠

[X재 가격분의

SS: [X재 가격분의 X재 한계효용은 Y재 가격분의 Y재 한계효용...

T: 어, 어, 이렇게 맘이 안맞아서야. 아니 내가 먼저 읽고 나면 여러분이 따라 읽어야지, 뭐

SS: 같이 읽자고 하셨어요

T: 같이 읽자고 그랬어요?

SS: 와와(웃음) 네

T: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호흡을 잘 맞춰야지. 시작

TS: X재의 가격분의 X재의 한계효용은 Y재의 가격

분의 Y재의 한계효용은 화폐 1원어치의 한계효용.

T: 그리고 173페이지 다르게 표현한 것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SS: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화폐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다.

T: 자, 우리는 오늘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알았어요. 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소비가 가장 합리적인 소비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외울 건 식 하나 밖에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SS: 네

T: 그래서 경제학 부분은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SS: 네

이러한 교수-학습의 단계를 지나 교사는 그날의 수업을 마무리하고 수업을 끝내게 된다. 보통 이 단계는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와, 다시 인사를 받고 교실을 뜨게 되는 “수업 종료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때때로 교사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종료 종이 울리게 되면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는 아주 짧게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의외의 시간이 남거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곤란하면 이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를 길게 끌고 가게 된다. 즉,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는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되며, 그것은 수업 전체의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음의 예는 아주 짧게 끝난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에 속한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면 교사는 수업의 시작에서와 같이 인사의 의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시 자유를 되돌려주고 교실을 나서게 된다. 이로서 일단 이 시간의 수업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것의 예이다.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

T: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만!

(학생들은 이제 조금 웅성거린다.)

수업 종료 단계

S: 차렷//경례

SS: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교실 앞문쪽으로 나와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수업은 한번의 시간대에 하나의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끝낸 후 다음의 단계로 이행해 나가는 어느 정도 단수적인 시간사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는 모두 교수학습단계의 원활화와 목표달성을 위한 일정한 기능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업을 위한 권위설정의 단계는 교실 전체 분위기를 정리하고 수업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어주며, 확인의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날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 역시 교수-학습의 마무리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여러 수업조직 가운데에서 그날의 수업과제와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교수-학습 단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시간사용의 유형이란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교사의 형식적(학생의 대답을 반드시 듣고자 하지는 않는)인 물음과 학생들의 대답으로 연결되는 교사

와 학생의 상호작용 유형이다. 이를 우리는 “형식적 상호작용”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 속도의 부조화를 포함하고 있다. 즉,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에서, 교사는 표출된 언어에 비추어 볼 때에 “느린 메세지”이어야 할 것을 “빠른 메세지”로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학생은 이에서 답을 포기하거나, 빠른 메세지로 전환할 수 있으면 답하게 되는 형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말해 교실수업에서 교사는 대부분 적절한 메세지의 형태가 무엇인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빠른 메세지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적절하여 대답이 있게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느린 메세지이어야 할 것이 빠른 메세지의 형태로 상호작용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답과 반응의 기회는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는 교사의 빠른 메세지가 적절하였던 경우이다. 교사의 “...뭐하는게 낫다?”라는 메세지는 보기에 따라서는 느린 메세지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들의 사전 준비상태의 도움으로 이는 빠른 메세지의 형태를 띄어도 상관 없게 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교사의 답과 동시에 대답할 수 있었다.

T: [바람직해요. 그렇죠. X재 1원어치는 줄이고 Y재 1원어치는 뭐하는게 낫다?]

SS: [놀리는게]

T: [놀리는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사의 빠른 메세지의 형태는 적절하지 못하다. 다음의 예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어떤 법칙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의 메시지는 느린 메시지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은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것이며, 오늘 비로소 그 개념에 접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는 이를 빠른 메시지로 인식하고 곧 바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라고 스스로 대답하게 된다. 이 경우 극소수의 학생만이 이에 맞추어 응답할 수 있을 따름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수업 전체를 통하여 매우 자주 발견된다.

T: 체감의 법칙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인 소비조건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겠어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정한 지출로 총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합리적 소비는 어떤 법칙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

SS: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T: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일명 고센의 제 1법칙,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은 고센의 제 2법칙이라고 하죠. 고센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이제부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이거예요. /2번 읽어

이러한 예에서와 같이 느린 메시지와 빠른 메시지의 사용의 혼란과 적절성의 부재는 이 교실의 사회수업이 지닌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꼭 사회 수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면, 약간의 논리비약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메시지 속도의 부조화는 학생들의 사고력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IV. 논의와 결론 : 수업문화의 연구는 바람직한 학급문화형성의 기초

우리는 이상에서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사회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학교생활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수업문화의 한국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요약하여 우리의 수업은 전체적으로 단순적인 시간사용의 형태를 가지면서 5단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것들은 권위설정 단계, 확인단계,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의 마감단계, 수업 종료단계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단계는 그날의 수업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수업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 교수-학습 단계는 여러개의 주제세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주제세트는 인도-집중수업-압축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집중수업 행위는 상당부분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가지는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집중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간사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형식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속도의 부조화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우리의 수업현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커다란 수업문화의 특징으로 이야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속도의 문제와 관련된 형식적 상호작용의 문제는 교실수업이 가지고 있는 입시위주의 수업방식이나, 철저한 교과서 의존적 수업 등과 함께 우리수업이 지닌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수업의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력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장의 예에서 처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느린 메시지의 형식으로 운용되어야 할 내용이 빠른 메시지의 형태를 지닌다거나,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고과정은 크게 위축 또는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느린 메시지의 형식을 요하는 질문이나 정보가 빠른 메시지의 그것으로 전달될 때에는 학생들은 사고와 비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어진 바를 단순히 따라다니게 된다. 또한 빠른 메시지를 요하는 질문이나 정보가 느린 메시지의 형식을 지니게 될 때에는 상호작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교실 상호작용에 있어 메시지의 시간적 사용형태는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고등사고력 형성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문화를 논의하였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좀 더 확장하면 교실 수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 문화의 이해는, 수업이 학생들의 학급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볼 때, 학급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학급문화에 대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수업 이외의 것들에 있었다면, 이 연구와 같은 수업문화의 이해를 통한 학급문화의 이해는 이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기반할 때, 우리는 바람직한 학급문화의 육성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Cho, Youngdal(1989), *Interaction Patterns in Korean Economics Classroom*, Univ. of Pennsylvania Hall, E. & Hall, R.(1987), *Hidden Differences*, Anchor press, New York.
- 조영달(1990), “한국 중학교 경제수업의 이해,” 교육개발, 1990. 8. 한국교육개발원.
- 조영달(1991), “한국 중등학교 교실분석의 새로운 지평선을 향하여,” 민주문화논총 13호, 민주문화 아카데미.